

◎ 어떤 장면을 나타낸 것인지 생각하며 그림의 말풍선을 채워 봅시다.

학년

반, 이름



야묘도추 | 김득신 | 22.4×27cm | 간송미술관 소장

병아리를 훔쳐가는 길고양이 한 마리 때문에 평화롭던 공간이 씨끌벅적해졌다. 병아리를 입에 물고 도망가는 바쁜 와중에도 고개를 돌려 뒤를 바라보는 고양이, 병아리를 구하기 위해 고양이에게로 달려는 어미닭과 부부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.